



# 國民教育憲章

우리는 民族 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祖上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自主 獨立의 姿勢를 確立하고, 밖으로 人類 共榮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教育의 指標로 삼는다.

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素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尚하고,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 精神을 북돋운다. 우리의 創意와 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發展하며, 나라의 隆盛이 나의 發展의 根本임을 깨달아,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다하며,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을 드높인다.

反共 民主 精神에 透徹한 愛國 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自由 世界의 理想을 實現하는 基盤이다. 길이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統一 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며, 信念과 矜持를 지닌 勤勉한 國民으로서, 民族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努力으로, 새 歷史를 創造하자.

1968年 12月 5日  
大統領 朴正熙

國民教育憲章이 나올 즈음 大韓民國은 日帝 強占期와 慘澹한 同族間의 戰爭으로 完全 廢墟가 되었고 그런 慘酷한 代價를 치르고도 가난에 찌든 休戰中의 分斷國家로 남아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試鍊은 苛酷했지만 오랜 歷史동안 여러 多様な 苦難을 통해 工夫하고 體得되어온 韓民族의 生命力은 한번 '잘살아 보자'는 恨으로 응어리지 다시 일어났습니다. 國家信用도 없고 擔保할 地下資源 等의 資產도 없이 언제 다시 戰爭으로 廢墟가 되어도 전혀 異常할 것이 없는 休戰國家였지만 우리는 '漢江의 奇蹟'이라고 불리는 世界 10位圈의 經濟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各自 여러 分野에서 타고난 저마다의 素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으로 全世界에 奇蹟으로 表現되는 눈부신 成長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世界 1位의 經濟大國은 勿論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絶望의 일 수도 있을까 싶은 最貧國이 西歐 現代文明이 數百年에 걸쳐 이룩한 經濟 成長과 政治의 民主化를 짧은 時間에 壓縮의 自力으로 이루어낸 成就의 結果物은 世界 1等이라 自負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甚至 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머지 반쪽과의 不便한 緊張 속에서 반쪽짜리라면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 能力을 보여 주지도 않았습니니다. 大韓民國이 世界에서도 驚異로운 成長을 이루어 온 過程은 苦難의 時代에 태어났으면서 도 子息에게는 苦難스럽지 않겠습니다. 世代의 賸과 憵물이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말도 안 되게 劣惡한 狀況에서 '不可能 없다'는 不屈의 精神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며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즐기찬 努力으로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大韓民國의 發展相은 至今도 研究對象입니다. 2次大戰이 끝난 뒤에 새로 세워진 國家는 無慮 140餘個였고 그 가운데 産業化와 民主化가 同時에 成功한 唯一한 國家가 大韓民國입니다. 繼續되는 激變의 소용돌이와 戰爭으로 因해 國民들이 國家를 體驗하는 가장 確實한 經驗을 共有함으로써 危機에 對應하는 生命力과 團結力도 있었지만, 우리나 世界에 類

예가 없는 模範의 高度 成長을 이룬 理由에 對해 世界 各國의 研究者들이 共通으로 내린 結論 中의 하나는 教育이 있었습니니다. 李承晚 大統領 時期는 大韓民國 歷史에서 가장 貧困한 時期였지만 그렇게 굶주리는 나라가 教育에는 政府 豫算의 10% 以上을 投資했습니다. 孔子敎室으로 불리는 數 많은 學校가 세워졌고 모든 年齡帶에서 學生들의 숫자가 飛躍의 勢로 增加했습니다. 激變의 時期 中에 배우지 못한 恨과 내 子息에게 가난만은 물려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배움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成就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모든 資源이 貧弱함에 對한 資源이라는 우리만의 唯一한 資源들을 苦難의 世代가 잘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全世界가 認定하는 教育熱로 有名한 知識強國이 되었습니니다. 그 中心에는 戰後世代로서 戰爭을 經歷하지 는 못했지만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으로 産業化와 民主化를 現場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學習된 自負心으로 怯 없이 世界로 進出하면서 大韓民國의 高速成長에 寄與해온 베이비부부 世代 가 있습니다. 베이비부부 世代들은 經濟成長속에서 그 前世代에 比해 豐饒롭게 자라났고, 높은 水準의 教育을 받았고 活潑한 社會參與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一名 '긴 世代'로서 父母님 世代의 恨에 共感하면서 子息 世代의 尖端文化도 어느 程度는 受容할 수 있는 緩衝地帶에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金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自手成家한 國家의 運命과 함께 해온 他們을 키우기 위해 온 世界上이 配慮했고 많은 經驗과 環境을 提供했습니다. 그들은 個人的 豐富한 經驗과 蓄積된 專門性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人類의 所重한 資産입니다. 그러기에 베이비부부들은 父母世代의 愛國心과 家族의 扶養을 爲한 經濟를 뛰어넘어, 援助받던 나라에서 援助하는 나라로서 單 하나의 模範事例인 大韓民國이 '밖으로 人類共榮에 이바지 할 때'에 그 役割과 本分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싫어하고 世界 1等を 좋아하는 우리는 當然히 世界에서 1等を 하는 分野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世界 1位도 많지만 부끄러운 世界 1位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巨大한 鎔鍊爐입니다. 世上의 모든 思想과 哲學, 理念, 宗教, 文化, 學問, 技術等이 다 들어와 있고 多様な 實驗場이 되어 있습니다. 歷史는 近現代의 世界史를 主導해온 文明들이 해결하지 못한 難題들을 습가빠게 달려온 우리 앞에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祖上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허겁지겁 받아들인 西歐文明을 잘 精製하고 東洋思想과 哲學의 精髓를 뽑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나아가야 합니다. 全世界的인 矛盾과 葛藤을 解決하기 爲해서 經濟의 패러다임부터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問題의 核心은 經濟에 있습니다. 그것은 生存의 問題이기 에 어떤 問題보다도 優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經濟發展을 통해 充分히 學習해왔고 또한 가장 잘하는 分野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리를 잘라 南과 北으로 나눈 理念도 分配의 問題일 뿐입니다. 至今의 패러다임으로는 풀 수가 없는 問題들입니다. 産業資本主義에서 金融資本主義로 洗練되게 갈아임었지만 더 많은 問題를 派生시킬 뿐입니다. 有限의 概念으로 分配의 問題를 論한다면 거기에 政治論理가 介入되고 그 瞬間 온갖 것들로 複雜해지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難題가 됩니다. 經濟의 生態系에 無限의 概念을 導入하여 풀어 나간다면 전혀 전혀 새로운 판을 짜 나아갈 수 있습니다. 領土나 資源, 市場, 資本, 勞動力 等의 有限한 것에서 知識이나 假想空間 等의 無限한 것으로 經濟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 많은 矛盾과 葛藤을 大韓民國이라는 巨大한 鎔鍊爐에서 하나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未來學者 엘빈 토플러는 知識의 非競爭性을 洞察했습니다. 財貨나 서비스는 어느 한 사람이 利用하면 다른 사람은 拋棄해야 하지만 그와 달리 知識은 數百, 數千萬명이 同時에 使用해도 닦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많은 知識이 어우러지고 그만큼 熾烈하게 담금질되고 激變에 맞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武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無限 複製가 되어도 아무 費用이 들지 않는

無限資源이 知識情報입니다. 이를 爲해 時空間의 制約이 없는 인터넷 假想空間을 新世界로 構築하여 創意的인 新經濟를 主導해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金融資本主義에서 知識資本主義로 換骨奪胎하는 그림판이 資本主義가 스스로의 矛盾으로 崩潰되는 것을 阻止하여 資本主義의 價値를 지켜나갈 수 있고 社會主義의 理想도 實現할 수 있습니다. 知識資本主義는 사람이 中心이 되는 世界上을 만듭니다. 地球上에서 人間만이 知的인 生命體이기 ため입니다. 곧 到來할 4次 産業革命의 人間에 對한 疏外問題로 벌어질 混亂을 解決하는 方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道德的인 規範이나 良心에 呼訴하는 것이 아닌 精巧한 시스템으로 作用할 때 意味가 있습니다. 宇宙가 調和롭게 秩序를 維持하는 것은 시스템이 있기 ため可能한 것일뿐입니다. 知識資本主義는 漠然한 口號가 아닌 精巧한 시스템으로 具現됩니다. '韓流'는 춤과 노래만 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分野에서 進行되어야 합니다. 知識이 資本이 되는 生態系에서는 創意的인 컨텐츠가 競爭力을 가지게 됩니다. 베이비부부들의 마지막 使命이 여기에 있습니다. 國際社會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우리는 더욱 빛나게 다음에 國際社會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世界 1位가 많은 矛盾까지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부들은 成長過程에서 理念으로, 地域으로, 集團으로, 階層으로, 甚至 於 男女로까지 모든 葛藤이 深化되어 다시 모래처럼 흘러지고 있습니다. 韓國人들은 平常時 모래와 같은데 시멘트 現象이 생기기엔 堅固하게 묻혀서 더욱 強해집니다. 신명나는 어떤 契機가 必要한 民族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뒤늦게 해내는 民族입니다. 베이비부부들은 싫어도 다가온 百歲時代에 數十年間의 긴 時間을 白手로 보내야 합니다. 白手를 名譽롭게 보내기 爲해서는 祖上님들의 '尊敬받던 白手生活'를 召喚하여 導入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現實과 作用하면서 工夫하는 '선비精神'을 가져오는 것일 뿐입니다. 固陋하게 여겨던 선비精神을 오늘에

되살려 各種 IT 關連 道具들을 適切히 活用하는 斬新한 선비精神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선비精神은 武士道나 騎士道와는 결이 다른 知識基盤社會의 新知識인입니다. 4次 産業革命을 앞두고 가장 適合한 生存形態는 선비입니다. 世宗大王이 한글을 만들어 컴퓨터 時代에 對 應했듯이 우리의 先祖들은 인터넷 時代의 生存形態로 선비를 準備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知識基盤社會를 잘 構築한 우리가 第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時代를 열어가는 모든 새로운 文明은 中心部가 아니라 周邊部에서 나타납니다. 文明의 中心部는 그 文明의 展開過程에서 發生하는 矛盾들을 緩和시켜온 많은 制度的 裝置를 가지고 있기 ため로 그 틀 안에서 安定만을 追求하기 ため입니다. 現代文明의 가장 弱點인 고리끼면서 廢墟에서 出發한 周邊部인 우리나라가 새로운 文明의 母胎이자 震源地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부들이 손바닥 맞아가면서 외웠던 國民教育憲章의 始作과 끝입니다. '나는 歷史的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새 歷史를 創造하자'

“고교교육현장”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 스펙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락도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쟁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고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며 경제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매마르고 살벌한 경쟁 정신을 북돋운다. 나는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하며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이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착하는 학생 정신을 드높인다. 이기정신에 투철한 입시 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게 물려 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모아 즐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 발췌 : 인터넷 백과사전 -

지금 알통에서는  
총 상금 1억원이 넘는  
통큰 이벤트 진행 중!

알통 만들기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40대 이상인 분으로  
2개국어 이상 구사 가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알통'으로 앱 검색 또는  
구글이나 Daum 웹 검색